

W_F_023

버버리 할망과 봉사 하르방

2016년 12월 20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김보배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옛날에 이제 봉사허곡 버버리 허곡 두 내우간 행 산 거라. 이. 게난 이제 살다가
보니깐 동네 불이 난 거라. 불이 나난 이젠. 할망 이제 하르방은 이제 몰레기고,
할망은 버버리라. 버버리니깐 이제 할망이 동네 불낫다 허난 할망 이젠 하르방
이젠 그 불차지 강 폭을 폭 심으니깐
“아 불낫구나.”
또 이제 흐쓸 잇이난, 이제 또 그 하르방 ?슴 강 할망이 폭 심으난
“수데만 남았구나.” (웃음)
겅 행 할망 하르방이 뭐 헷단다.

- 핵심어 : 봉사, 버버리, 할망, 하르방, 불